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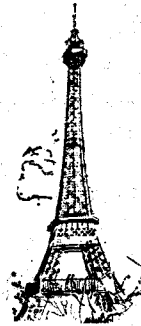
TV의 發達略史(下)

—電子式TV는 판스와스—

즈보리킨과 피로 판스와스는 TV送信에 대해 서로 다른 組織의 基本特許를 保有하였다. 피로 판스와는 財政的인 背景은 있었지만 本質的으로는 個人發明家이다. 그는 1927년에 完全한 電子組織을 研究하여 그 가운데서 가장 重要한 發明인 解像管등을 特許出願하였으나 特許紛爭끝에 판스와스와 즈보리킨이 各各 別個組織의 TV송신기 本특허를 取得하기에 이르렀다. 이때 필코會社가 판스와의 여러 發明의 權利를 讓受하였으나 TV의 商業化에 疑問을 품으면서도 필코는 2년동안 계속하여 판스와의 연구에 財政支援을 하였다. 그리하여 1935년에는 그의 TV 연구가 매우 進捗되었으나 재정지원에 限界가 와서 RCA와 파라마운트會社에 特許權을 賣渡하려 하였다. 그러나 成約되지 않아 TV受信機 製造를 위한 판스와는 TV·라디오會社를 設立하였다. 이 회사를 설립하기전까지에 投入된 開發研究費는 無慮 100萬弗이 넘었다.

그후 판스와는 1937년에 그의 여러 특허를 美電信電話會社(ATT)와 相互特許使用契約이란 이름으로 讓與에 따른 使用許與契約을 맺었고 1939년에는 RCA와도 사용계약을 맺었다.

전자조직의 基本的發明은 美國에서 이루어졌으나 一般放送에의 利用은 英國의 1936년이 처음이다. 機械的 組織에 관한 베어드의 연구는 1929년 이후이며 비록 原始的TV放送이기는 하나 EMI도 즈보리킨의 전자조직에 대해서도 優越性을 認定하고 있었다. EMI는 이때부터 센벨그를 중심으로 TV연구팀을 構成하여 EMI와는 別個로 연구를 계속하였으며 에미스큐프로 알려진 아이코노스코프등의 改良裝置를 發明하였다. EMI는 1935년에 BBC에 TV조직을 提供하여 그후 放送이 開始되었고 1936년에는 FMI와 RCA는 특허사용과 技術情報를 交換하였다. 센벨그팀에는 A.D 불무라인과 P.W위전스라는 優秀한 技術者가 끼어 있었다.



어쨌든 電子式 TV의 基本的着想的 重要部分은 個人發明家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다시말해서 今世紀初에는 로징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다음에는 판스와의 손으로 전자식 TV기술이 착상되었다는 點이 이를 立證한다.

RCA보다 먼저 實用的 TV組織을 개발하려는 노력은 판스와의가 하였고 이에따라 RCA의 研究速度가 加速된 것이다.

RCA에 의해서 이루어진 TV의 進歩는 즈보리킨도 大役을 맡았으며 즈보리킨은 創造的인 착상을 많이 했다. 그의 이같은 착상은 웨스팅하우스나 RCA에서 일하기전 부터이다.

전자조직의 進歩發達에는 많은 技術者를 必要로 하였으며 이 점에서 RCA는 판스와의와 그들 스텐보다는 有利한 高地에 있었다.

EMI가 1936년에 世界最初의 전자식 TV조직을 英國에 設備한 것이 오늘의 發展된 TV가 全世界에 登場한 結果가 되었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貢獻者의 한사람인 피로 판스와는 少年時節에는 거의 獨學을 했고 그는 個人發明家답게 簡單한 설비에 의한 小規模研究를 즐기는 人物이었다. ♪